



권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7>

문수보살의 가르침과 믿음

선재동자가 그가 만난 첫 번째 선지식인 문수보살에 의해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뜬다. 그리하여 발심을 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가는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구도자인 보살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올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화엄경의 주석가(註釋家)들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교화에 의해 보살도의 최초의 수행과정인 '믿음의 경지(信位)'를 확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화엄경이 보살도의 토대가 되는 믿음을 문수보살에 의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고 비로소 발심하였다고 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재동자는 결코 발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발심은 우선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문수보살과 관련해서 설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지하는 바

와 같이 문수보살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사방세계를 두루 비추는 장애 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에서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하여, 세계의 참모습(實相)을 밝히고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는

선재동자 문수보살 교화로 진리에 눈 떠 믿음 있어야 여래의 경지에 이룰수 있어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바로 지혜의 광명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해서 그곳에 깨끗한 믿음을 생기게 한다. 문수보살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지(大智)문수보살이라 불린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용맹스럽게 진실을 밝혀서 중생의 무명을 없애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진실된 것으로서 진정한 귀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망령되게 믿는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불을 지향해 나아가는 수행을 완성해서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선행도 믿음에서 시작된다 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화엄경 현수보살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진실에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종교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대개 초자연적인 능력·기적 등과 관련을 가지거나 신성(神聖)하다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된 것, 올바른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 진실하고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그 도리를 따르므로 해서 밝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다.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뛰어난 이해력이 진정한 믿음의 내용은 된다. 마음이 맑음으로 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실이아말로 인간생존의

이유를 모든 감각기관을 깨끗하고 밝게 하며, 믿음은 견고하여서 파괴할 수 없으며, 믿음은 번뇌의 근본을 깊이 멸하며, 믿음은 부처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믿음은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환난을 멀리 여의어서 어려움이 없으며, 믿음은 능히 여러 마군의 길을 뛰어넘어 위없는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인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가 되며, 믿음은 보리(菩提) 나무를 생장시키며, 믿음은 가장 훌륭한 지혜를 더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일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인다.

이 내용은 깨끗한 믿음의 공덕이 광대한을 설한 것이다. 믿음은 진실로 불도(佛道)의 근본으로서 무한한 공덕을 낳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덕에는 보살들의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보살도를 전개하게 하여 여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의 구도의 삶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피어나는 참 생명의 새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12

돈교에 대한 징관의 입장(1)

법상의 오교판에서 돈교에 자기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돈교를 부정하고 비판한 혜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한 이는 고려 화엄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징관(738-839)이다.

징관은 '돈교란 단순하게 말 떠남이 아니라, 이치를 단박에 표현하기 때문에' 돈교라고 말한다. 징관에 의하면 대상과 언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돈교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이치를 가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징관이 말하는 '이치를 단박에 드러냄(頓證此理)'은 혜원에 말한 '표현을 있고 이치를 드러냄(仁證顯理)'과는 언어적인 어법이 다르다. 징관이 '단박에 드러냄(頓證)'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혜원은 '표현을 있음(仁證)'이라고 했다. 여기서 '표현', '드러냄'으로 번역된 전(證)이란 용어는 같지만, 전자는 긍정적 표현이 강조되고 후자는 부정적 표현

이 강조된 것이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치를 말로 단박 드러냄'과 '말을 있어 이치를 드러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징관과 혜원이 돈교라는 개념과 그 언어관에서 서로 차이점을 갖고

단박에 드러나는 이성·이치 존재

있기 때문이다. 징관은 돈교를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 이치는 드러낼 수 있다고 이해한 반면에, 혜원은 돈교를 말 떠남의 이치로서 말을 떠남 관계로 교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교에 해당되는 이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돈교의 이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징관은 돈교의 이치가 있고, 그것을 단박에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관은 화엄경을 주석한 그의 <연의초(演義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박(頓)에 이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단박이라고 한다. 표현의 대상이 바로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이치를 설하니, 이것이 어찌 교설(能證)이 아닌가? 무릇 교설의 가르침은 모두 그 대상을 따라서 세운 것이다. 만약 삼승(三乘)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점자의 가르침(漸教)이요, 만약 사사무예를 표현한다면 이것

은 곧 화엄의 원교이다. 어찌 대상이 바로 이성임을 가지고서 교설의 가르침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징관이 하는 말은 분명하다. 언어에 의해서 단박에 드러나는 이성 혹은 이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돈교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오교판 가운데서 아비담마 불교와 대승의 유식과 여래장 사상은

이다. 일체의 모든 선법(善法)을 깊이 앙욕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욕에서 벗어나게 하며,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서 보인다. 믿음은 홀박한 때가 없어 마음이 청정하며, 교만함을 없애주고 공경받는 근본이 되며, 또한 진리의 창고에 제일의 재물이 되며, 청정한 손이 되어 여러 행을 받는다. 믿음은 능히 은혜롭게 베풀어 인색하지 않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佛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자라게 하며, 믿음은 여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믿음은 모든 감각기관을 깨끗하고 밝게 하며, 믿음은 견고하여서 파괴할 수 없으며, 믿음은 번뇌의 근본을 깊이 멸하며, 믿음은 부처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믿음은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환난을 멀리 여의어서 어려움이 없으며, 믿음은 능히 여러 마군의 길을 뛰어넘어 위없는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인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가 되며, 믿음은 보리(菩提) 나무를 생장시키며, 믿음은 가장 훌륭한 지혜를 더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일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인다.

이 내용은 깨끗한 믿음의 공덕이 광대한을 설한 것이다. 믿음은 진실로 불도(佛道)의 근본으로서 무한한 공덕을 낳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덕에는 보살들의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보살도를 전개하게 하여 여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四大

불교 경전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이라 하여 4대(四大)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지, 수, 화, 풍'을 그냥 '땅, 물, 불, 바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땅과 같이 견고한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물과 같이 유동성의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불과 같이 태우는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바람과 같이 통기의 성질을 갖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김용정 교수는 <과학과 불교>라는 책에서 '전자, 중성자, 양성자, 광자'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삼천大千 세계는 공(空)이라는 하나된 차원에서부터 4대(광력, 통신력, 자력, 전력)가 만들어지고 이 4대로부터 삼계(三界)

모든 것은 심(心)으로부터 기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이 모이고 모여서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시간을 거치면서 수없이 가지치기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 우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진법을 사용하여 풀이해 보겠다.

심은 0(零)과도 같은 뜻이므로 심을 0이라 가정하고 출발하겠다. 심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은 陰心(00)과 陽心(01)이 될 것이다. 음심과 양심은 서로 혼합하여 음음심(000)과 음양심(001), 양음심(010), 양양심(011)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음음심(000)과 음양심(001), 양음심(010), 양양심(011) 등 4가지 지, 수, 화, 풍이라는 4대의 본래의 뜻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다. 그

이진법 풀이로 4대 본래의 뜻 추측 우주는 마음(心)을 근본으로 형성

즉, 물질계, 에너지계 및 정신계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물질계의 가장 근본도 공(空)이요, 에너지계의 가장 근본도 공이다. 정신계의 가장 근본도 공이며, 여하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화엄경>에도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이라 하여,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모든 것속에 하나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의상도 <법성계>에서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 하나가 있으며(一中一切多中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다(一即一切多即一)'고 말한다.

그래서 필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지, 수, 화, 풍'의 뜻을 풀이해 보고자 한다. 일체유심조란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그러므로 이 4대는 분화의 때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 중성자, 양성자, 광자'보다 더 원초적인 질료가 아닌가 생각되며 '땅, 물, 불, 바람'이란 뜻은 더 더욱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지(000), 수(001), 화(010), 풍(011)이라는 4대가 다시 서로 분화하여 8가지 종류의 존재가 생기고 여기서 다시 16가지 종류의 존재가 탄생한다. 이와 같이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무한하게 가지를 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로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속에는 항상 0(零), 즉 심(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도 우주의 한 존재이므로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안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품질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 ◇ 도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노년층
- ◇ 기억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입금확인 후 1~2일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미얀마 남방수련법회 및 남방수계, 보살계

-남방전통합동천도재와 성지순례-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증서 및 수료증)
- ▶ 위빠사나 수행 체험 및 강좌
- ▶ 탁발체험 및 1일 1종식 체험
- ▶ 미얀마 성지순례(양곤, 파간, 만달레이, 뽀따야 등)

행사기간 2003.6.6 - 6.16(10박 11일)

참여준비물 사진(반병함) 6매, 여권

참여인원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자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지순례지

양곤 (셰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뎃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지사원, 까바에파고다)

파간 (셰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텃빈인뉴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셰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뽀따야 (신교은 따른 사원, 뽀따야 동굴)

만달레이요 (교를름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났던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케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중언하고 일본내에서 선종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탄백, 매실, 머위 등)

■현대대상책임보험 3억 가입
■복용 : 100일 후 발행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